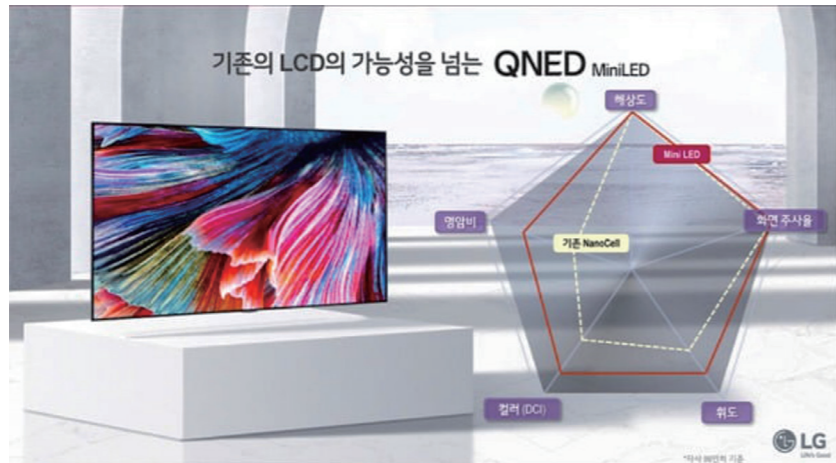


LG전자, '한단계 업된 LCD' QNED TV 공개

독자 고색재현 기술 '퀀텀 나노셀 컬러 테크놀로지' 적용

백라이트에 미니LED 광원 적용... 밝기·명암비도 업그레이드



LG전자가 미니LED(발광다이오드)를 적용한 프리미엄급 LCD(액정표시장치) TV를 29일 공개했다. 'QNED TV'로 명명된 신제품은 삼성 QLED TV보다 한 단계 진화했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LG전자는 이날 남호준 HE연구소장, 이정석 HE마케팅커뮤니케이션담당, 백선필 TV상품기획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기술설명회를 열고 새 프리미엄 LCD TV를 공개했다.

신제품은 LG 나노셀 TV 상위 라인업에 위치한다. 다만 미니LED TV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고 광원(백라이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상위 프리미엄 TV 라인업은 올레드 TV다.

노셀과 퀀텀 나노셀을 거쳐 실제에 더 가까운 순색(Pure Color)을 표현한다. 업계에서 사용중인 대표적인 고색재현 기술을 모두 사용해 LCD TV의 색 표현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TV가 빨간색을 나타낼 때 빨간색의 고유한 파장 외에 노랑, 주황 등 주변 색 파장이 미세하게 섞여 표현될 수 있는데, 퀀텀 나노셀 컬러 테크놀로지가 빛의 파장을 정교하게 조정해 온전한 빨간색을 표현해준다.

LG전자 측은 "미니 LED는 QLED TV가 한단계 진화한 것"이라면서 "QLED 대비 10~15배 많은 LED를 사용하면서, 컬러 기술을 LG 독자기술로 개발해 퀀텀 나노셀 플러스 2가지 기술을 결합했기 때문에 기존 퀀텀 나노셀 사용 QLED 대비 새로운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또 LG전자는 신제품 백라이트에 기존 LCD TV 대비 광원의 크기가 10분의 1 미만 수준인 미니LED를 적용한다. LG전자는 올 초 'CES 2020'에서 미니LED를 적용한 제품을 처음으로 소개한 바 있다.

LED 크기가 줄어들면 동일한 면적에 더 많은 광원을 배치할 수 있다. 보

다 밝은 화면을 구현할 수 있으며, 화면분할구동(로컬디밍) 영역을 세분화할 수 있어 LCD TV의 단점 가운데 하나인 명암비도 올라간다.

신제품은 86형(대각선 길이 약 218cm) 8K(7680x4320) 해상도 기준 3만 개 가량의 미니LED를 탑재한다.

로컬디밍 구역은 약 2500개에 달한다.

LG전자는 내달 열리는 CES 2021에서 미니LED LCD TV 주요 제품을 선보인다.

초대형 제품 중심으로 8K와 4K 해상도를 포함해 10여 개 모델을 글로벌 시장에 본격 판매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신제품이 백라이트와 액정표시장치를 활용하는 LCD TV의 단점을 대폭 업그레이드하며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는 다수의 전문가로부터 최고 성능을 인정받은 자발광 올레드 TV를 최상위 모델로 운영하는 한편, 프리미엄 LCD TV 시장에서도 LG 나노셀 TV와 더불어 진일보한 기술을 대거 적용한 미니LED TV 라인업을 앞세워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 HE연구소장 남호준 전무는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올레드 TV에 가장 가까워진 LCD TV 기술 진화의 정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롯데마트, 토마토 대전

29일 서울 중구 봉래동에 위치한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서 모델들이 토마토 대전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1월 1일부터 6일까지 전점에서 토마토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노래방 사장님 300만원·택시기사 50~100만원...내달 11일부터

정부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총 9조3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 지원하는 사실상의 3차 재난지원금이다.

피해 업종별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버팀목 자금을,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소득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식 등 주요내용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피해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 자금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하나.

A.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영업중단이나 제한, 매출감소 등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자영업자 280만 명에게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마트·학원·독서실·오락실 등 81만 명에게 100만원을,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 등 23만8000명에게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에 관계 없이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Q. 본인 소유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별도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이 되나.

A. 건물을 가지고 있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버팀목 자금은 가능한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 여부인지 확인하고 매출 증감 확인하면 집행과정이 복잡해진다.

Q.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에 개인택시 사업자도 포함되나.

A.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 지급 대상이었던 개인택시 사업자 16만 명을 포함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100만원이 지급된다. 법인택시 운전사 8만 명은 근로자로 인정해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 받는다.

Q. 버팀목 자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

기동취재본부

A. 정부는 다음 달인 내년 1월 6일 사업공고를 내고, 기존 수혜자와 특별피해업종 250만명을 대상으로 11일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온라인 신청을 접수, 지급을 시작해 1월 중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규로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다음달 25일 부가세 신고 후 별도 사업공고로 통해 지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Q.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도 문을 닫으면서 시설 내에 있는 부대업체도 피해를 입게 됐는데.

A.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에 따라 시설 내 부대업체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스키장 인근 스키 대여점 등도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하게 300만원 지원한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Q. 코로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가게를 접었다면 지원 못 받나.

A. 이미 폐업한 경우 버팀목 자금을 지원 받을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한 이 사업을 연장해 16만 명의 폐업 소상공인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 최대 1000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로 1만 명에게 혜택을 준다.

Q. 특고·프리랜서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미 지원을 받은 65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수혜자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음 달 6일 사업공고를 내고 이후 안내문자가 발송되면 11일까지 신청을 통해 지급이 이뤄진다. 기존 수혜자는 설 연휴 전까지 90% 지급을 완료하고, 신규 수혜자는 15일 별도 사업공고 후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KT 게임박스, 10만 가입자 돌파...월정액 50%할인 6개월 연장

출시 후 4개월만에 가입자 10만 돌파 성과

KT가 자사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게임박스'의 가입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가입자 10만 돌파는 지난 8월 12일 서비스 정식 출시 후 4개월만에 이룬 성과다.

KT는 고객 성원에 힘입어 올 12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게임박스 월정액 50% 할인 프로모션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게임박스는 월 4950원(VAT 포함)의 이용료만 내면 110여 종이 넘는 다양한 게임들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구독형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다. 게임박스가 제공하는 모든 게임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이달 초에는 기가지니 버전도 출시되며 게임박스 가입자는 모바일, PC, IPTV 등 환경에서도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T는 인기 게임 '보더랜드 3'을 무료로 제공한다.

게임박스 소프트웨어에서 제작하고 2K게임즈가 배급을 맡은 보더랜드 3은 1인칭 슈팅(FPS) 장르로 지난해 출시됐다.

스팀, 에픽게임즈 스토어,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원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플레이스테이션 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에도 출시될 예정이다.

게임박스 가입자라면 보더랜드 3이 무료로 제공되는 기간 동안에는 별도 유료상품 가입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한편 KT는 연말까지 게임박스를 통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유료회원 대상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들에게 추첨을 통해 LG울트라 기어 노트북(1명), LG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



니터(2명), 갤럭시 버즈 라이브 블랙(3명), 모바일 문화상품권 5천원권(100명)을 제공한다. 또 게임박스 앱에서 '2020 올해의 게임 어워드'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에어팟 프로(2명), 벨킨 무선 충전패드(5명), 롯데리아 썬데이치킨(100명)을 증정한다.

KT 신규서비스P-TF장 홍재상 상무는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 게임의 장점 덕분에 게임박스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더 좋은 게임 환경을 마련하고 대작 타이틀을 지속 제공하여 게임박스를 비롯한 클라우드 게임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광어·전복·해초' 전남 수산물 가정간편식 출시

전남 대표 수산물로 가정간편식 개발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 가구·캠핑족 등 증가 추세에 맞춰 전남의 대표 수산물로 개발한 가정간편식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정간편식은 도내 양식 수산물을 이용한 전복간장, 고추장비빔, 해초비빔, 광어조림, 우럭맑은탕 등 5종으로 30일부터 전국 GS더프레스, GS25 편의점, 남도장터 등을 통해 판매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국내 수산물 가정간편식 시장은 지난 2016년 160억원

에서 지난해 두 배 이상 증가한 34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최근 재택근무와 온라인 원격수업,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 수요가 늘고 비접촉 소비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구매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물은 손질이 까다롭고 조리 시 생성되는 연기와 냄새를 감내해야 하고 설거지까지 번거롭다.

하지만 간단히 데우기만 하면 되는 가정간편식으로 인해 젊은 층과 도시민들의 수산물 소비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환기자

마스크 가격 안정세...비말차단용 400원대

12월 4주 마스크 생산량 1억7149만개

하루 1000명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도 마스크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의 온라인 판매가격은 장당 400원대에 진입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

면 12월 4주(21~27일) 의약품 마스크의 총생산량은 1억7149만개다. 원활히 공급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가 1억4292만개, 비말차단용 마스크 2231만개, 수술용 마스크 626

만개가 생산됐다.

통계청의 마스크 가격조사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안정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 소비가 많았던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장당 온라인 판매 가격은 12월 3주 533원에서 떨어져 498원에 진입했다. 오프라인에선 675원으로, 전주(674원)와 유사했다.